金지사 "재해 구호 만전…도민 피해 최소화 적극 지원"

침수피해 함평 현장방문 후 대책회의

道 자체 방안 강구…이재민 조치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3일 저녁 1시간 동안 극한호우가 쏟아진 무안군 무안읍보건소 등 주변 가구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신속한 복구 대책을 당부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작은 피해라도 재해 구호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하게 확인하고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4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함평군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살피고 신속한 조치를 지시한 뒤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당부했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전남에는 평균 66㎜의 많은 비가 내렸다. 지역에 따라 무안 망운면이 최고 289.6㎜의 강수량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담양 봉산 196.5㎜, 구례 성삼재 188㎜ 등 '극한 강우'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무안 망운면과 무안읍, 함평읍 등에선 주택, 상가를 비롯해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함평 천지전통시장은 46개 상가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추가 피해 접수 또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함평 천지전통시장 침수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직접 살피고 상인들을 위로하는 한편 조속한 복구와 실질적 지원에 온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현장점검 직후 곧바로 호우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점검회의를 주재, 분야별 피해 상황과 지원 현황을 확인하고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언급한 후 "피해 분야와 지역에 따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피해 지원 내용과 대책을 도민에 적극 홍보하고 국비 지원 외에도 도 자체 지원 방안을 다방면으로 확인해 피해 지원이 최대한 이뤄지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김 지사는 호우 피해 이재민에 대해서도 에어컨이 나오는 학교 강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오후 9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극한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쉼터 운영, 구호물품 배부 등 현장 조치를 서두를 것을 긴급 지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회의를 마친 후, 곧바로 무안과 함평지역 저지대 피해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의 피해상황을 살피고 실질적인 대응책 추진을 현장에서 지휘했다. /양시원 기자

道·관광재단 '블루투어 1+1 이벤트'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4일 "여름철 전남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해양레저, 케이블카, 실내 관광지 등 다양한 테마의 체험상품을 정가의 50% 수준으로 즐길 수 있는 '블루투어 1+1 이벤트'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025 블루투어 체험상품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서남해안권의 블루투어 콘텐츠를 상품화 한 9개 시·군(목포, 여수, 나주, 광양, 담양, 강진, 해남, 구례, 신안)의 17개 업체가 참여, 선착순 2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용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전남 블루투어 1+1'을 검색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SOSOK' 앱 또는 웹 페이지를 통해 구매·예약이 가능하다.

대표 체험 상품으로는 ▲목포 해상케이블카 ▲여수 낭만요트 ▲구례 ▲섬진강 집라인·스카이바이크 ▲강진 가우도 집트랙·모노레일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여수 녹테마레·아쿠아플라넷 ▲나주 3917마중 다과체험 ▲광양 에코파크·와인동굴 ▲담양 딜라이트 등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실내 체험상품이 마련돼있다. 행사 기간 중 신규 상품도 순차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양시원 기자

GGM 캐스퍼 활용 교통약자 스마트카 개발

광주시, 공모 선정…국비 70억 확보

2027년까지 3년간 102억 투입 추진

광주시가 고령 운전자 등 교통약자 안전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5년도 자동차산업 기술개발 사업(스마트카)'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70억원을 지원받는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총 101억9천만원(국비 70억원·민자 31억9천만원)을 투입해 '자동차산업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 중인 소형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을 활용,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AI 기반 맞춤형 교통안전 및 편의 기술을 개발해 실증·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다.

고령자 등 교통약자 운전자들의 인지적 한계와 상황 대응의 어려움을 보완, 주행 안전성과 운전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교통약자 주행패턴 분석을 위한 내·외부 인지센서 융합 및 모듈 개발 ▲맞춤형 음성·사용자 경험(UX) 적용 AI 기반 능동형 운전자 도움 시스템 개발 ▲AI 기반 시스템 평가 검증 기술개발 및 실증 등이다.

특히 이 사업은 지역 상생 일자리 사업으로 설립·운영 중인 GGM의 캐스퍼 차량을 활용한 상용화를 통해 지역 자동차 제조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판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의 자율주행 핵심부품(인지·제어·통신) 인증평가 및 실증사업과 연계될 경우 광주시가 미래차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미래차산업 선도를 위해 지난 2023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진곡일반산단, 빛그린국가산단, 미래차국가산단까지 약 220만평을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로 지정받아 2028년까지 총 657억원을 투입해 자율주행차 기반 구축,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광주 미래차국가산단이 국가전략사업으로 확정돼 국가산단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역 유망 기관 기업 등과 함께 지속 추진하고 기업들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각종 선도 사업을 위해 국비 사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道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지원' 본격 시행

타 시·도서 시술시 최대 20만원 교통비

의료접근성 향상·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전남도가 난임부부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난임 시술은 진료, 검사 등을 위해 수차례 병원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불가피하게 타 지역에서 시술받은 난임부부가 교통비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시술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전남지역에서 시술에 실패해 불가피하게 타 시·도 의료기관에서 시술 받은 경우, 시술 차수 1회당 교통비를 전북·경남 지역은 10만원, 그 외 지역은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전남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올해 7월 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은 난임환자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시술한 뒤 타 지역 의료기관에서 추가 시술을 받으면 시술을 받을 때마다 해당 차수에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 출산 증가와 초산 연령 상승으로 난임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책이 시술 중단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난임 시술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모두 큰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번 교통비 지원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